

힌 구름도 봄마중 맑은 후 구름이 많아지겠다.

2월 24일 (음 1월 7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like 서울, 부산, 대구, 광주, etc.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specific days (25th, 26th, 27th, 28th, 3/1, 2/6).

광주시청 로비 인기기는 로봇 다환이

안내·손님맞이 '길잡이' 척척

광주시청 로비에서 길 안내를 하는 로봇 '다환'이 청사를 찾은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광주시청 안내 로봇 '다환'이 어린이들과 함께 동요를 신나게 합창하고 있다.

견학온 아이들 금새 친해져 시간가는 줄 몰라

反FTA집회때 큰 일 날뻔... 내달까지 임무수행

이 재잘했다. '다환'이는 키 1m50cm에 몸무게는 115kg에 달한다.

췌다사테크 가족들이 고심 끝에 지어졌다.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흰 눈꽃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황사 걱정있고 주말 나들이 갈까

광주·전남 완연한 봄 날씨

광주·전남 지방은 주말인 24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한편 고비 사막과 네이멍구(內蒙古) 지역에서 발생한 강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23일 전국에 기습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노래방 강도 안잡나 못잡나

광주 북구 한달 반새 6건 발생 경찰 속수무책

광주시 북구 노래방에서 최근 한 달반에서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노래방 강도사건이 6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으나,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몸싸움을 벌이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노래방 6곳이 잇따라 털렸다.

드라마 '주몽' 주인공 송일국·한혜진 나주 명예시민

MBC 월·화 인기 드라마 '주몽'의 주인공 송일국과 한혜진이 나주 명예시민으로 위촉된다.



인기 드라마 '주몽'에서 열연하고 있는 송일국과 한혜진.

교복업체 3곳에 "발전기금 내라" 학사모, 수습억 요구 파문

교복값 인하 운동을 해 온 학부모 단체가 교복업체에 발전기금을 낼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주장했다. A교복업체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20여원까지 발전기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적어도 5억원 이상은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학사모가 운영에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도심 오피스텔 2인조 괴한 현금 등 1억5천만원 털어

도심 오피스텔에서 거액의 절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에 따라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모자를 쓴 용의자들이 찍힌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화면을 분석,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범인의 뒤를 쫓고 있다.

'게임비리' 김재홍의원 기소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정동채 의원 등은 무혐의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게임업 자료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과 함께 여론도 달아났다.

의원과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했으며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천377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검증심사위원장과 조직폭력배 등 22명을 지명수배하고 게임물 업체에 차명으로 주식 투자하고 재산등록을 누락한 문화부 공무원 3명과 게임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찰관 2명 등 공무원 5명은 해당 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비리변호사 셋 자적박탈 변형, 유죄확정따라 등록취소

변호사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변호사 3명의 등록이 취소돼 당분간 변호사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나원침 (7061) 김중두



흠피에 음란물 마광수씨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과규홍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흠피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광수(56)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전남지역 산불 잇따라

23일 낮 12시44분경 영암군 신북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임야 0.2ha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장나라 술집서 노래하러 협박받아

○최근 5집 앨범을 낸 '한류스타' 장나라(사진)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장나라의 아버지이자 연극배우인 주호성씨가 폭로.

○주씨는 22일 장나라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arajiang.com)에 '한류와 한국 연예계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연예인의 인권과 조직폭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젠가 딸에게 술집에서 노래 불러달라고 거세게 요구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경찰청장실에 문의한 적이 있다"고 토로.

○그는 이어 "불안한 일이 있는데 비리리에 조사와 보호를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은 "비리리에는 불가능하고 사건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사건을 접수하는 순간 기자회견도 노출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